

人文論叢

80권 4호

2023년 11월

기획 논문 1

기획의 말 1

/

‘근대의 이중과제론’의 재검토

이 기획은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론’, 즉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라는 담론에 대해 대학과 학문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구상되었다. 백낙청은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로 40년을 재직했으며, 1966년 계간지 『창작과비평』을 창간한 이래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비판적 지식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발언하고 행동해 왔다. 그는 초기의 시민문학론에서 시작하여 민족문학론을 거쳐 1990년대 초부터는 자신의 담론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서로 깊이 연관된 담론, 즉 ‘분단체제론’, ‘근대의 이중과제론’,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기하고 연마해 왔으며, 이 담론들은 최근에 더욱 뚜렷해진 ‘개벽’에 관한 사상적 모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백낙청의 담론은 적어도 대학 등 제도권 학계에서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이 기획은 근대의 이중과제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오늘날 우리 대학과 학문사회가 맞부딪히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는 작업에 긴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오늘의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근대의 모순이 초래한 위기, 즉 기후-생태 위기와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지구적 차원의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과제, 또 한반도 차원으로 좁히자면 분단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박한 과제에 대학과 학문사회가 제 역할을 해내려면 근대의 이중과제론 논의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명환의 「‘근대의 이중과제론’ 논의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과 학문사

회의 역할을 생각하며」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근대의 이중과제론이 성립되는 과정과 그 주요 쟁점을 살핀다. 이 글은 『녹색평론』을 이끈 고(故) 김종철 교수와 ‘적당한 성장’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 남북연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차, 이와 연관하여 통일 아닌 평화를 앞세우는 정치적 입장 등,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어야 할 쟁점들을 분명히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유경의 논문 「근대의 손님들: 백낙청의 황석영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는 한국전쟁 당시의 신천양민학살 사건을 그린 황석영의 『손님』과 이를 다룬 백낙청의 평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백낙청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김명환의 글과 달리 백낙청의 담론과 평론에 내재한 약점과 한계를 짚는 데 주력하는데, 예를 들어, 1990년대의 분단체제론이 1970년대의 민족문화론과 무리 없이 호환되는 것이라면, 분단체제론의 연원이 그만큼 깊고 일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단체제론의 시의성과 독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 위에 이 논문은 백낙청의 평가와 달리 『손님』에서 찾은 화해의 메시지는 기독교라는 손님과 공산주의라는 손님 사이에서가 아니라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일어날 일로 볼 수 있다는 점, 즉 “『손님』의 ‘숨은 손님’은 바로 미래 세대”라는 관점을 제기한다.

변현태의 「도스토옙스키와 로런스: 바흐친의 미학 이론을 매개로」는 노문학자로서 현대 영국문학 소설과 이에 대한 백낙청의 평론을 분석하는 독특한 글이다. 백낙청은 영문학자로서 자신의 박사논문 주제이기도 한 로런스(D.H. Lawrence) 문학을 평생에 걸쳐 탐구했으며, 그 결과를 『서양의 개혁사상가 D.H. 로런스』(2021)라는 단행본으로 내기도 했다. 따라서 로런스의 대표 소설인 『무지개』(1915)와 『연애하는 여인들』(1920), 그리고 이에 대한 백낙청의 평론을 재검토하는 일은 근대의 이중과제론을 살피는 작업에서 결코 우회로가 아니라 필수적이다. 이 글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서술방법과 로런스 문학을 비교하고, ‘도스토옙스키와 로런스’라는 주제가

어떤 문학적 통찰을 던져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로런스의 동시대인이자 잘 알려진 도스토옙스키 연구자인 바흐친(M. Bakhtin)을 로런스와 대비시킨다. 로런스의 과잉(excess)과 바흐친의 잉여(избыток)에 대한 검토는 전공자가 아니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어도 'being'을 중심으로 한 로런스의 존재론과 이에 바탕한 백낙청의 서양형이상학 극복의 언설을 이해하는 일에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이 세 편의 논문이 문학연구자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백낙청 담론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김명환

